

# 내년 지방선거 누가 뛰나

## “지방정부·교육 CEO 내가 적임”

추석이다. 고향을 찾아 온 가족이 모였다. 자연스레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로 얘기는 흐른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시·군·구 통합과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여부 등 변수가 남아있지만 입지자들은 물밑 행보에 분주하다. 내년엔 교육 수장인 시·도교육감도 직접 뽑는다. 광주일보는 한가위 특집으로 현재까지 거론되는 단체장과 교육감 후보군들을 소개하는 ‘한가위 정치 박상’을 차렸다. 표는 현직 단체장을 가장 먼저 실었고, 정당은 민주당(민), 한나라당(한), 민노당(노), 진보신당(진), 무소속 순으로 기재했다.

### 박시장 3선 도전에 거물들 대거 포진

#### ■ 광주시장

박광태(66) 광주시장은 3선 도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성공하면서 3선 행보에 한층 탄력이 붙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의 상흔이었던 도청 별관 문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담판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박 시장 특유의 추진력이 새삼 조명받고 있다.

이에 맞서 현직 국회의원들과 참여정부 시절 관료 출신들이 버티고 있다.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강운태(61)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6월 민주당에 복당한 강 의원은 관선 광주시장 시절 광주비엔날레를 창설했고 내부부장관, 농림부장관을 지낸 뒤, 무소속으로 두 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검증된 정치인’이다.

참여정부 시절 건교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을 지낸 이용섭(58) 의원도 최근 시장 출마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두차례 장관을 지낸 화려한 경력과 능력, 도덕성 등이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지난 지방선거 때 열린우리당 후보로 박 시장과 맞붙었던 조영택(58) 의원도 재경 돌을 준비하고 있다. 당시 첫 출전에 박 시장



박광태 66·민 광주시장, 강운태 61·민 국회의원, 양형일 58·민 전 국회의원, 이용섭 58·민 국회의원, 전갑길 52·민 광산구청장, 정동재 59·민 전 문화관광부 장관



조영택 58·민 국회의원, 정홍화 45·한 청대연설기록비서관, 오봉운 52·노 민주당 사무총장, 윤난실 44·진 전 광주시의원, 정찬용 59·무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을 상대로 34%의 지지를 받았던 조 의원은 최근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주변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동재(59) 전 문화관광부장관도 (사)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를 기반으로 올해 초부터 일제감치 행보를 시작했고, (사)인재육성아카데미를 이끌고 있는 정찬용(59) 전 청와대 인사수석도 지지자들과 광주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민생탐방을 하고 있다.

교수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양형일(58) 전 의원은 최근 서구 치평동에 ‘시민포럼 새물결’ 사무실을 내고 조직 준비에 나섰다. 무

소속 정동영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양 전 의원은 정 의원의 민주당 복당 여부에 따라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단체장 중에서는 전갑길(52) 광주 광산구청장이 움직이고 있다. 전 청장은 “큰 정치를 하겠다”며 사실상 시장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민주당에 맞서 한나라당에서는 정용화(45) 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이, 민주노동당에서는 오봉운(52) 사무총장이, 진보신당에서는 윤난실(44) 전 광주시의원이 준비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박준영-주승용-이석형 세대결 불만

#### ■ 전남지사

박준영(63) 전남지사의 3선 도전은 확실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타 후보들에 비해 더블스코어 차이로 여유롭게 앞서고 있는데다, 선거 과정에서 ‘DJ 황수’를 자극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직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한 높은 인지도와 탄탄한 조직력, 지역민 호감 등 3박자가 두루 뒷받침하고 있다. 또 2012 여수 세계박람회, F1국제자동차대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유치해 전남을 세계에 알리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반면 3선에 대한 거부감도 만만치 않다. 또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뉘는 소지역주의도 박 지사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틈새를 주승용(57) 의원과 이석형(51) 함평군수가 파고들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주 의원은 ‘승용불패’로 유명하다. 도의원, 여수시장, 국회의원을 거치는 동안 지역과 중앙에서 쌓은 행정력과 인적 네트워크가 강점이다.

주 의원은 최근 22개 시·군을 돌며 민생탐방을 마쳤고, 언론인과 시민들에게 이메일로 ‘주승용이 전하는 희망편지’를 전하며 ‘인터넷 정치’를 펴고 있다.



박준영 63·민 전남지사, 이낙연 57·민 국회의원, 이석형 51·민 함평군수, 주승용 57·민 국회의원, 최인기 64·민 국회의원, 김기룡 47·한 전남도당 위원장



문경식 54·노 전남도당 위원장, 박용두 41·노 대표 비서실장, 최송춘 51·진 전남도당 위원장

‘나비’ 하나로 일약 전국 스타덤에 오른 이 군수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걸린 이 군수는 한 체급 올려 차기 도지사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 군수는 ‘강연 정치’에 열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 경선이 박 지사와 주 의원, 이 군수 등 3파전으로 치러질 경우 캐스팅 보트를 쥐 것으로 보이는 이 군수의 선택도 관심거리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3위 후보의 선택에 따라 최종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이명박 정부로부터 국무총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최인기(64) 의원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유력한 후보자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또 3선에 원내대표를 역임한 이낙연(57) 의원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장관 출신의 높은 인지도

를 가진 지역 인사를 후보로 내세운다는 목표를 세우고 인재영입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김기룡 전남도당 위원장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에서는 전 전경농민회총연합 의장을 역임한 문경식(54) 전남도당 위원장과 박용두(41) 강기갑대표 비서실장이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며, 진보신당에서는 최송춘(51) 전남도당 위원장이 준비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첫 직선·정당 공천 없어 선거 조직망 변수

#### ■ 광주시 교육감

내년 지방선거에서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는 광주·전남의 교육계를 이끌 시·도 교육감 선거다.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지만 소속 정당을 가질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현 시·도 교육감의 ‘현직 프리미엄’이 높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다만, 직선제의 성격상 짜임새 있는 선거 조직망 등이 중요 변수인 만큼 정치권과 연계될 가능성도 높다.

현재 광주시교육감 후보 중 가장 유력시되는 인물은 안순일(64) 교육감이다. 안 교육감은 현재 공식적인 출마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교육계 안팎에선 출마 선언만



안순일 64 광주시 교육감, 김영수 62 전 삼도초 교장, 윤영월 58 광주예교 교장, 이정재 63 전 광주교대 총장, 이종현 59 광주 무등중 교장

남겨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지난 2006년 시 교육감 선거에서 안 교육감과 결선투표 끝에 아쉽게 낙마한 윤영월(여·58) 광주예교 교장도 다크호스다. 윤 교장은 “많은 교육계 인사들과 학부모 등이 출마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며 “이들과 함

께 교육감 선거에 제도전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재(63) 광주교대 교수와 이종현(59) 무등중 교장, 김영수(62) 전 삼도초 교장 등도 사실상 공식 출마 선언만 남겨놓은 상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김장환 현 교육감 독주속 2~3명 물망

#### ■ 전남도 교육감

내년 전남도교육감 선거는 김장환(71) 현 교육감의 3선 도전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다. 도 교육감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인지도 면에서 독보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교육감의 출마 여부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후보군도 다수다.

오는 24일 임기를 마감하는 김 교육감은 “아직 현직에 있는 만큼 출마여부보다는 ‘말은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싶다”면서도 “교육정책의 생명은 연속성인데, 교육감이 바뀔 경우 교과부에서도 극찬한 전남의 선진교육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전남교육에 도움이 되는 쪽을 선택하겠다”



김장환 71 전남도 교육감, 신태학 63 전 여수교육감, 윤기선 63 전 전남교육연구실장, 정찬중 66 전 무안교육감

며 사실상 출마의사를 밝혔다. 교육계 안팎에선 김 교육감이 10월 중에 출마 의사를 공식화 할 것으로 보고있다.

김 교육감과 함께 출마설이 거론되는 인물은 신태학(63)전 여수교육감과 윤기선(63) 전 전남교육연구실장, 정찬중(66) 전

무안교육감 등이다. 이들 중 정 전 교육감을 제외하고, 모두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 중 일부는 벌써부터 각종 행사를 찾아다니며 ‘얼굴 알리기’에 나선 상태다.

신 전 교육감은 “공식 출마 발표 날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고, 윤 전 원장은 “교육감 출마를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전 교육감은 “주변에서 많이 권유(출마)하고 있지만 선거라는 게 참 힘든 일이다”며 “선거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심사숙고 후 최종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가라앉은 마음을 활짝 열고 따뜻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라!! — www.hanbitgosi.co.kr

# 2010년 신바람 나는 공무원 합격준비는 지금부터 한빛에서

## 79급 공무원 합격의 힘!

79급 종합반 하루9시간 강의

기능직특채 찍어주기 "하루특강"

한빛 최고의 합격시스템

개강 10~5

한빛고시학원

234-0234

대학재학생, 직장인들

### 일야간반

초남유일 야간반 개설

첫개강 > 10월 5일

강의시간 19:00 ~ 22:50

기초부터 심화이론

체계적인 학습단계

합격 논스톱강좌

고시학원 대표 브랜드

한빛고시학원